

도시여성노인의 주거환경 선호*

Residential Preferences for Elderly Women in Urban Areas*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주거학과

교수 홍형옥
박사과정 지은영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 : Hyung Ock, Hong

Doctoral Course : Eun Young, Jee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V. 결과 해석과 논의 |
| II.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VI. 결론 |
| III. 선행연구 고찰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과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future senior housing plan by examining the preference of aged women in urban areas. The subjects were 465 elderly women in Seoul and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respondents preferred senior housing located in suburbs. The most important locational factors were accessibility to garden and the aged women wanted living 20 minutes apart by walking or driving from their children's house.

There was a tendency of moving toward three-generation house sharing kitchen and entrance with their children or assisted living which cared by warden as they get senile -living alone, poor income and poor health condition-.

I. 문제 제기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가족의 구성형태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해 핵가족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고자

부모와 별거하려는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변화와 노인 자신도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 본 연구는 1997년 경희대학교 연구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보호를 더 이상 자녀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대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은 그 역할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Chappell, 1985)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회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과거에는 가족에 의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던 노인의 주거관련 문제 및 서비스들이 이제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주거에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있으므로 일반인을 위해 계획된 기존의 주거가 노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불합리한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에는 얼마나 불충분한 환경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노후의 보다 나은 삶과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인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설계가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제도와 함께 노후의 여러 가지 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 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거와 재가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는 아직도 가족부양 우선주의에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노인주거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거시설은 미분양 사태를 낳고, 저소득 노인의 수용시설은 부족하며,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아직 초보적 눈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인의 주거문제를 획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류에 기인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의 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주거 선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1997년 현재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77.4세로 69.6세인 남자노인보다 8년이 길어서 혼자서 오랜기간 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거주지, 경제, 건강에 대한 생활지원 문제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노인의 주거선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주거환경실태와 만족도, 요구도와 선호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총체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중 제 2편으로, 평균수명이 길어 혼자 사는 기간이 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21C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계획과 개발에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여성노인의 노인주거환경 선호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여성노인의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도시여성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주거시설(입주의사, 규모, 위치)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가?
- 3) 도시여성노인의 건강상태별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어떠한가?
- 4) 도시여성노인의 건강상태별 자녀동거시 선호하는 주거공간 형태는 어떠한가?

III. 선행연구 고찰

노인주거를 크게 시설주거와 현재의 자기집에 사는 것으로 나누어 볼 때, 여성노인들의 관련시설에의 접근성은 어떠한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의사, 규모, 시설위치 등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지, 또 자기집에 그냥 살 때 어떤 주거유형을 선호하며, 자녀와 동거시 주거공간 형태는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므로 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선호

노인들의 취미활동으로 첫째가 화초재배, 그리고 야채 기르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박태환, 1990; 고성룡, 1990), 양로원 노인의 약 30%가 매일 채소밭에 가고 산책로를 1주일에 4회 이용하는 노

인이 과반수가 넘고 있다(차미란, 1984). 노후의 주거환경 중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선호는 정원시설, 교통 및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녀·친척 거주 근접성, 교육시설, 노인단지 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지은영, 1997; 전명숙, 1994), 다른 어느 시설보다 정원시설이 노인주거시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거주할 동네에 희망하는 시설로 산책로와 원예·화단, 채소밭, 그리고 기타 시설(약국, 문화센터, 노인정, 교회) 등을 들고 있어(신영숙, 1998), 노인주거환경에는 텃밭이나 산책로, 정원시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가 주거이동시 고려하는 거주지역 특성으로는 편리한 교통, 주변의 자연환경, 편의시설 다음으로 자녀와의 접근성이 고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영외 3인, 1996). 외부환경 중 정원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보다는 자녀와의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고졸 집단보다는 대졸이상 집단이 노후에 자녀 및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나타났으며(전명숙, 1994), 저학력일수록 자녀와 가까이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신경주, 1988)도 있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끼리의 생활을 선호하며, 자녀나 친지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환, 1990). 전국의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시설 설립에 선호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 주거시설의 지리적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의료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52.5%), 그 다음은 해변 휴양지(47.8%), 교통이 편리한 곳(41.5%) 자식과 가까운 곳(23.3%) 등의 순(중복 응답)이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이로써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성향을 알 수 있다.

2. 노인주거시설 선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의사와 선호하는 노인주택, 위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노인주거 및 서비스 개발 시 이용하겠다는 중년층의 비율이 42.0%,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으며(오찬옥, 1992), 또 다른 연구(대한주택공사, 1995)에서도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71.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중년층(46~50세), 비경제적인 집단이랄 수 있는 주부인 경우 특히 이용의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1993)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주거시설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는 응답자의 63%가 장애에 노인전용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 40%만이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 나라 노인주거 단위주호의 면적은 독신의 경우 25.23m²(7.6평), 부부 노인의 경우 52.11m²(15.8평)을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다(윤장섭, 1984). 일본의 경우(菊澤康子, 1992)에도 1986년~1990년 주택건설 기준에서 1인의 경우는 30.5m²(9.4평), 2인의 경우는 43m²(13.3평)을 노인주거 규모로 삼고 있다. 서구 여러 국가의 주거단위 규모(정부 기준)를 보면(박태환, 1995), 독신형 28~38m²이며, 부부형은 42~58m²이다. 중년층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노인주거의 희망규모는 평균 23.93평(대한주택공사, 1995), 21~25평(고경필·윤재웅, 1995), 15~19평(김태일, 1995), 20~30평(48.5%)을 선호하였으며(신영숙, 1998), 경제적 고려를 하여 전에 살던 집보다 규모를 줄여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찬옥(1992)의 연구에서는 부부/건강할 때는 31~35평, 부부/건강 악화시에는 21~25평을 선호하였으며, 혼자인 경우는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11~20평을 선호하여 상황 악화시 더 적은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주택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거규모는 커졌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6~25평(지은영, 1997)을 선호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규모가 큰 것을 선호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는 보통 전망과

공기가 좋은 전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혜택이 있고 사회 및 심리적으로 유리한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추세(신영숙, 1998; 지은영, 1997; 김태일, 1995; 박재간, 1995; 대한주택공사, 1993;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오찬옥, 1992; 박태환, 1990)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과 서비스시설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노후에는 도심지보다 도시근교에서 살고 싶어하였으며, 부부/건강한 경우에 도시근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혼자/건강악화 즉 열등한 상황으로 갈수록 도시를 선호하였다(오찬옥, 1992). 이렇게 은퇴후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내기 위해 교외를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살던 곳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과 가족과 가까이 거주하려는 경향, 가족과 별거시 동질적인 동년배나 친구와 가까이 살려는 경향(이인수, 1995; 김태일, 1995; 임철우·윤종숙, 199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유형과 주거공간형태 선호

노인들의 건강상태별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자녀와 동거시 선호하는 주거공간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이다.

우리 나라 노인가구(65세 이상)의 89.9%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1994). 노후 주거유형 선호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경향(신영숙, 1998; 고경필·윤재웅,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태현, 1994; 김웅기, 1994; 대한주택공사, 1993; 유혜정, 199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2; 박태환, 1990)이 강하며, 설비가 집중되어 있어 관리하기 쉽고 근린시설 이용이 수월하면서도 저렴한 주거를 원한다(Morris & Winter, 1987). 미국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는 주거시설로 단독주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타인의 간섭과 통제(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난 자유와 독립된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라고 한 반면,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단독주택의 재산가치에서 비롯된 심리적 안정(이인수, 1997)으로 분석

되는 경향이 가장 지배적이다. 반면에, 노년기에 이를수록 공동주택에서의 거주비율이 높다는 보고서와 가족생활주기 단계중 부부만 사는 노년기에는 아파트를 선호(홍형욱, 1986)한다는 연구가 있다. 노년기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연구(지은영, 1997; 박근형, 1996; 김태일, 1995; 오찬옥, 1993)도 다수 있으며, 건강악화 시에는 고층보다는 저층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오찬옥, 1992).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 미국 노인들은 집수리, 관리에 대한 부담감의 해소를 들고 있고, 우리 나라 노인들은 방법 대책이 용이함을 들고 있다(이인수, 1997).

중년층은 노후에 자녀가족과 별거상태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는 데 반해서, 노년층은 자녀세대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3대동거형 주택을 가장 선호하였다(지은영, 1997; 심영외 3인, 1996). 부부/건강한 경우와 혼자/건강한 경우에는 자녀와 별거하기를 희망하였으며(신영숙, 1998), 부부/건강한 경우에는 노인자립주택을, 혼자/건강 악화 시에는 3대동거주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은영, 1997). 반의존단계에는 자녀와 동거(37.4%)하기를 원하지만 완전의존단계에는 자녀와의 동거(27.5%)보다는 별거하여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34.4%) 또는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길(36.1%)원하였다. 의존증대시 자녀에게 기대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관리원, warden)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율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반의존생활을 위한 주거대책도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호하는 노인주거 유형이 건강상태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지, 아니면 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인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과 자녀부부가족이 동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일주택에서 공동생활공간과 개인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별 영역배치가 이루

어려야 하며, 거실이나 식당 등 공동생활공간은 함께 사용하고, 욕실이나 변소는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조원덕, 1984), 공간의 공용과 분리에 의해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등의 다양한 동거주택계획을 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신경주, 1987; 민경애, 1987; 주택공사, 1987; 윤철순, 1986).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거주택 계획은 각 세대간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상호교류가 원활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철, 1986; 지순·윤복자, 1986)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인전용실의 확보율이 낮으며(박하전, 1985; 고계철, 1979), 이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는 세대간의 공간분리 요구보다는 방의 갯수와 크기 증가에 대한 요구와 화장실 분리요구가 컸다(건설부·주택공사, 1987).

IV.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주유형(자녀가족과 동거, 노인부부만 거주, 노인단독 거주)과 연령(60~65세, 66~70세, 71~75세, 76세이상), 그리고 건강상태와 배우자 유무가 고루 분포되도록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법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노인생활지원서비스 요구도, 노인주거환경 선호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문항만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1997년 12월, 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과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는 개별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 총 500부 중 492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65부이다.

자료의 분석으로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χ^2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결과 해석과 논의

1.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연령은 66~70세가 35.2%, 60~65세가 30.8%, 71~75세가 21.5% 그리고 76세 이상이 12.5%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자녀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61.7%이며, 나머지는 노인부부만 거주(26.9%)하거나 노인단독으로 거주(11.4%)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거의 반수(44.3%)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반은 중학교(24.3%)와 고등학교를 졸업(22.4%)한 노인이며 대학교를 마친 노인은 9.0%였다. 1994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보다 교육수준이 훨씬 높게 표집되었다.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71.6%)이 대부분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9.5%, 없는 노인이 40.4%였다. 월소득은 50~100만원인 노인이 42.7%이며, 101~200만원인 경우가 23.1%였고, 50만원이하인 노인은 21.7%로 나타났다. 200만원이상인 경우도 12.6%나 되었다. 거주지는 강북이 41.3%, 강동 24.7%, 강남 23.9%, 강서 10.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세분화한 결과, 월소득 내역은 본인자금으로 충당하는 노인이 51.2%(238명)였으며,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61.1%(284명)였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 받는 노인은 8.6%(40명)이었다. 본인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00만원이하가 70.6%이며, 자녀지원금은 50만원미만이 60.9%였다(중복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주된 수입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을 가진 노인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지원은 27.0%였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3.9%에 불과하였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주 수입원을 다른 아시아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로부터의 도움과 근로소득이 노인들의 주 수입원인데 반해, 일본은 전체 노인의 절반이상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부동산·저축·배당금으로부터의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우리 나라 노인의 비율(각각 12%, 68%)은 태국 노인의 비율(38%, 96%)보다 낮게 나타났다(이가옥 외, 1994). 이러한 사실은 곧 노인생활의 취약성을 나타내주며, 자녀로부터 도움이나 자산소득이 주요 수입원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복지제도의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월생활비는 50~100만원이 39.3%, 50만원 미만은 38.4%로 나타났다. 생활비 사용처는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는 노인이 51.7%이며 여가와 문화생활에 사용한다는 21.6%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월소득과 월생활비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가계는 소득보다는 생활비가 더 적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노인의 주거환경 선호

노인주거환경 선호에 대해서는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노인전용주거시설 선호, 그리고 건상상태별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주거공간 형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1) 관련시설 접근시간

여성노인은 정원·텃밭(걸어서 7분, 차를 타고 6분)이 가장 가까이 있길 원하여 선행연구(신영숙, 1998; 강승희·이영호, 1997; 지은영, 1997; 전명숙, 1994)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거공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원시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구매시설(걸어서 8분, 차를 타고 6분), 의료시설, 노인학교·노인정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집은 21분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집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걸어서 15분 내외, 차를 타고 10분 내외의 위치에 있길 원하고 있다.

Lawton & Byert(1973)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구매를 위해 반경 6블럭(300m) 밖으로는 잘 나가지 않다고 하였고, Newcomer(1973)의 연구결과에서도 버스정류장, 공원, 구매시

〈표 1〉 관련시설에의 접근시간

사건	항목	걸어서(분)	차들타고(분)
		M*	M*
정원·텃밭		7.43	6.29
구매시설		8.22	6.57
의료시설		10.96	8.82
노인학교·노인정		11.25	8.72
공원·산책로		11.61	9.13
친구집		13.39	12.51
종교시설		15.04	10.56
스포츠시설		16.17	10.28
문화시설		17.51	11.10
자녀들의 집		20.82	20.74

M* : 평균

설, 공원, 은행 등 생활지원시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150~300m)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 대한주택공사(199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보행능력의 약화로 보행시간은 20분이 한계이며 승차거리의 적정한계 시간은 20분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사대상 중에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집단이 61.7%나 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38.3%인데 20분 이상의 거리는 매일 만나보기는 힘든 거리로서, 가끔 이용하는 문화시설보다도 자녀들의 집을 더 먼 거리에 둔다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네트워크를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이는 생활공간을 따로 하더라도 걸어서 지척의 거리보다는 주말상봉 정도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가족과의 근거리 네트워크를 자동차로 30분이내(牛山美緒, 1996)로 한 것과 관계 있는 바, 20~30분이라는 거리는 매일은 힘들고 주말상봉이 가능한 거리에 속하는 점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시설 접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관련시설에의 접근시간에 대한 변수들(연령, 건강, 거주유형, 소득, 교육, 배우자유무)의 영향력을 카테고리별로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 관련시설 접근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관련시설			정원·텃밭			노인정			공원·산책로			친구집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자녀들의 집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연령	60~65세	-12	-14	-2.47*	-14	-.08	-1.55	.00	.02	.46	-.00	-.04	-.81	.10	.05	.98	.00	.04	.74	.20	.10	1.88	.27	.06	1.18	.00	.00	.06
	66~70세	-21	-21	-3.49**	-19	-.11	-1.77	.00	.00	.06	-.10	-.04	-.72	.27	.12	2.08*	-.12	-.05	-.97	.00	.03	.62	.00	.00	.06	.00	.00	.06
	71~75세	-23	-18	-2.91**	-26	-.11	-1.77	.00	.03	.57	-.25	-.07	-1.40	.00	.01	.28	-.39	-.13	-2.08*	-.00	-.03	-.50	.22	.04	.79	.00	.00	.06
교수	초등학교 졸업	-.00	-.09	-1.73	.00	.00	.04	.00	.04	.88	.00	.01	.18	.00	.02	.45	.00	.00	.15	.15	.07	1.38	.00	.00	.06	.00	.00	.06
	중학교 졸업	-.18	-.18	-3.20**	.00	.05	.91	.00	.00	.10	-.00	-.01	-.24	.17	.08	1.44	.13	.06	1.12	.17	.07	1.38	.32	.08	1.59	.00	.00	.06
	고등학교 졸업	-.20	-.14	-2.51*	-.00	-.01	-.35	.00	.01	.30	.38	.11	2.02*	.21	.06	1.23	-.00	-.01	-.28	.00	.02	.39	.52	.09	1.78	.00	.00	.06
	대학교 졸업	.08	.01	.17	.28	.16	3.08**	.00	.05	.95	.15	.06	1.25	.00	.01	3.68	.22	.11	2.18*	.18	.09	1.73	.18	.05	1.01	.00	.00	.06
거주형	자녀가족과 동거	-.00	-.02	-.32	.13	.07	1.44	-.00	.00	-.00	.39	.18	3.41**	.18	.09	1.75	-.00	-.03	-.62	-.14	-.06	-1.30	.65	.18	3.61**	.00	.00	.06
	노인부부만 거주	.00	.04	1.19	.00	.00	.17	.29	.12	2.23*	-.00	-.02	-.42	.13	.04	.91	.10	.03	.73	.33	.11	2.26*	.27	.03	1.13	.00	.00	.06
	노인단독 거주	.00	.03	.49	.28	.18	3.03**	.00	.01	.23	-.00	-.00	-.06	.00	.00	.08	.00	.00	.05	.00	.03	.56	.37	.12	1.98*	.00	.00	.06
	50만원 미만	.00	.06	.99	.26	.11	2.00*	.11	.14	.78	-.00	-.01	-.29	.00	.02	.45	.12	.04	.82	.00	.02	.37	.00	.00	-.02	.00	.00	.06
배우자	51~100만원	.14	.10	1.79	.33	.13	2.29*	.31	.12	2.07*	.14	.04	.75	.00	.00	.07	.13	.05	1.14	.00	.03	.56	.25	.04	.86	.00	.00	.06
	101~150만원	.00	.00	.08	-.00	-.00	-.12	.00	.03	.57	-.00	-.02	-.37	.45	.16	2.77**	.54	.29	3.34**	.57	.20	3.46**	-.11	-.02	-.41	.00	.00	.06
	151~200만원	.00	.03	.65	.13	.08	1.51	-.00	-.02	-.47	.19	.09	1.64	-.00	-.05	-.90	.00	.04	.83	-.00	-.04	-.79	-.16	-.05	-.89	.00	.00	.06
	201만원 이상	.15	.15	1.5	.15	.15	1.5	.124	.120*	.13	.15	1.5	.15	.130	.221**	.16	.240**	.16	.16	.18	.18	.18	.18	.18	.18	.18	.18	.18
회귀상수	F값	1.24	1.78*	1.5	1.12	2.03*	1.24	1.20*	.13	.15	1.5	1.5	1.33	1.30	2.21**	.16	2.40**	.16	1.39	2.80**	.18	1.36	2.43**	.17	1.36	2.43**	.17	
	R ²	.15	.15	1.5	.15	.15	.15	.15	.13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8	.18	.18	.18	.18	.18	.18	.18	
		.15	.15	1.5	.15	.15	.15	.15	.13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8	.18	.18	.18	.18	.18	.18		

*p<.05 **p<.01 ***p<.001

정원·텃밭에의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60~65세 여성노인에 비해 연로한 66세이상의 여성노인들의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에 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노인정과 노인학교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소득으로서, 건강이 좋은 노인에 비해 건강이 나쁜 여성노인의 경우 증가하였다.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 비해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인 여성노인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공원·산책로 접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유형과 소득으로서,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노인 단독 거주할 경우, 그리고 50만원미만 소득인 여성노인집단에 비해 151~2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여성노인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친구집에 대한 접근시간은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에 비해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노인의 경우,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노인부부만 거주할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종교시설에 대한 접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소득으로서, 60~65세 여성노인에 비해 71~75세이상 여성노인들의 경우, 그리고 50만원미만 소득인 여성노인집단에 비해 201만원이상의 고소득층 여성노인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스포츠시설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건강상태, 소득으로서, 60~65세 여성노인에 비해 76세이상의 여성노인들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건강이 좋은 노인에 비해 건강이 나쁜 여성노인, 50만원미만 소득에 비해 201만원이상의 고소득층 여성노인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문화시설 접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유형과 소득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단독 거주할 경우, 50만원미만 소득에 비해 201만원이상의 소득을 가진 여성노인의

경우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자녀들의 집에의 접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유형과 소득으로,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노인부부만 거주할 경우, 소득이 50만원미만인 집단에 비해 51~100만원인 노인의 경우에 접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구매시설과 의료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노인의 노인전용주거시설 선호

(1) 노인주거시설 입주의사

조사대상 여성노인들 중 노인전용주거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경우는 40.0%이며, 없다는 경우는 23.9%, 자녀와 의논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35.7%로 나타났다.

고졸이상의 학력이 대다수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오찬욱(1992)의 연구에서는 노인주거 및 서비스 개발시 이용의사는 93.9%(이용하겠다, 42%/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용하겠다, 51.3%)로 미래의 노년층(중년층)은 노인주거시설에 대해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와 여성노인단독 거주할 경우에는 노인전용주거에 입주하겠다는 대답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노인끼리 살 때, 혹은 혼자 살 때 노인전용주거의 수용정도가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연령이 66~70세에서는 입주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76세이상의 최고령층에서는 입주의사가 없거나 자녀와 의논 후 결정하겠다는 기대비율보다 높았다.

건강이 좋은 여성노인은 입주의사가 있다고 한 경우가 많았으나, 건강이 나쁠 때는 노인전용주거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쁠 때는 오히려 자녀의존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01~150만원 소득집단의 여성노인들은 입주할 의사가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이 50만원미만인 노인과 201만원이상인 집단에서는 자녀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

<표 3> 여성노인의 노인주거시설 입주의사

n(%)

변수	입주의사	있다	없다	자녀와 사는	계	χ ² 값
		f(%)	f(%)	f(%)		
거주 유형	자녀가족과 동거	90(31.4)	77(26.8)	120(41.8)	287(61.7)	26.89***
	노인부부만 거주	67(53.6)	23(18.4)	35(28.0)	125(26.9)	
	노인 단독 거주	31(58.5)	11(20.8)	11(20.8)	53(11.4)	
	전 체	188(40.4)	111(23.9)	166(35.7)	465(100.0)	
연령	60~65세	61(42.7)	37(25.9)	45(31.5)	143(30.8)	16.72*
	66~70세	76(46.3)	30(18.3)	58(35.4)	164(35.3)	
	71~75세	39(39.0)	22(22.0)	39(39.0)	100(21.5)	
	76세이상	12(20.7)	22(37.9)	24(41.4)	56(12.5)	
	전 체	188(40.4)	111(23.9)	166(35.7)	465(100.0)	
건강	좋다	148(44.4)	74(22.2)	111(33.4)	333(71.6)	8.03*
	나쁘다	40(30.3)	37(28.0)	55(41.7)	132(28.4)	
	전 체	188(40.4)	111(23.9)	166(35.7)	465(100.0)	
소득	50만원 미만	30(31.6)	23(24.2)	42(44.2)	95(21.7)	17.48*
	51~100만원	79(42.2)	38(20.3)	70(37.4)	187(42.7)	
	101~150만원	32(57.1)	10(17.9)	14(25.0)	56(12.8)	
	151~200만원	18(40.0)	17(37.8)	10(22.2)	45(10.3)	
	201만원이상	22(40.0)	11(20.0)	22(40.0)	54(12.6)	
	전 체	181(41.3)	99(22.6)	158(36.1)	438(100.0)	

*p<.05 **p<.01 ***p<.001

타났다.

(2) 여성노인의 노후주택규모 선호

조사대상 노인들의 노후주택 희망 규모는 평균 24.79평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이 선호하는 주거 규모가 16~25평(44.7%)으로 나타난 지은영(1997)의 연구결과와 25평내외가 노인주거 규모로 적당하다는 고경필·윤재웅(1995)과 지순 외(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노후주택 규모는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에 26~30평을 선호하는 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았고, 노인단독 거주 시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소득이 50만원이하이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15평이하의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인용 노인시설주거나 노인실의 적정규모 산출에 유의한 자료로서, 특히 저소득 노인의 노인시설주거 규모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이 201만원인 집단, 중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16~20평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만 거주하고 대학을 졸업한 101~200만원 소득집단에서는 26~30평을 원하는 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부용 노인주거의 규모, 부부전용 노인시설 규모 산정에 도움이 되며, 공용지원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단위공간의 규모가 1인실 6.5평/ 2인실 8.5평인 유료양로시설에서 시설주거에 대해 공간적인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규모에 대한 만족도는 90%로 높게 나타났다(오혜경, 1994)는 결과에 미루어 볼 때, 개인주택과 달리 시설주거는 공용시설의 다양화와 외부 개방공간 이용으로 개인공간의 협소가 보완되기 때문에 볼 수 있으므로 개인주택 규모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여성노인의 노인주거단지 위치 선호

조사대상 여성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주거단지의

〈표 4〉 여성노인의 노후주택규모 선호경향

n(%)

변수	희망규모	15평이하	16~20	21~25	26~30	31평이상	계	χ^2 값
		f(%)	f(%)	f(%)	f(%)	f(%)		
거주유형	자녀가족과 동거	82(28.6)	116(40.4)	40(13.9)	34(11.8)	15(5.2)	287(61.7)	37.28***
	노인부부만 거주	17(13.6)	42(33.6)	23(18.4)	31(24.8)	12(9.6)	125(26.9)	
	노인단독 거주	26(49.1)	17(32.1)	4(7.5)	4(7.5)	2(3.8)	53(11.4)	
	전 체	125(26.9)	175(37.6)	67(14.4)	69(14.8)	29(6.2)	465(100.0)	
배우자	있 다	58(20.9)	107(38.6)	44(15.9)	44(15.9)	24(8.7)	277(59.6)	17.8**
	없 다	67(35.6)	68(36.2)	23(12.2)	25(13.3)	5(2.7)	188(40.4)	
	전 체	125(26.9)	175(37.6)	67(14.4)	69(14.8)	29(6.2)	465(100.0)	
소득	50만원 미만	37(38.9)	33(34.7)	13(13.7)	11(11.6)	1(1.1)	95(21.7)	52.63***
	51~100만원	53(28.3)	78(41.7)	31(16.6)	19(10.2)	6(3.2)	187(42.7)	
	101~150만원	12(21.4)	19(33.9)	7(12.5)	14(25.0)	4(7.1)	56(12.8)	
	151~200만원	7(15.6)	7(15.6)	10(22.2)	11(24.4)	10(22.2)	45(10.3)	
	201만원 이상	12(21.8)	23(43.6)	5(9.1)	8(14.5)	6(10.9)	54(12.6)	
	전 체	121(27.6)	161(36.8)	66(15.1)	63(14.4)	27(6.2)	438(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76(36.9)	74(35.9)	25(12.1)	24(11.7)	7(3.4)	206(44.3)	45.69***
	중 학교 졸업	23(20.4)	51(45.1)	19(16.8)	16(14.2)	4(3.5)	113(24.3)	
	고등학교 졸업	22(21.2)	37(35.6)	20(19.2)	15(14.4)	10(9.6)	104(22.4)	
	대 학교 졸업	4(9.5)	13(31.0)	3(7.2)	14(33.3)	8(10.0)	42(9.0)	
	전 체	125(26.9)	175(37.6)	67(14.4)	69(14.8)	29(6.2)	465(100.0)	

*p<.05 **p<.01 ***p<.001

위치는 도시근교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골(25.4%)로 나타나 도시(15.1%)보다는 시골에 거주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대체로 선행연구(신영숙, 1998; 지은영, 1997; 김태일, 1995; 대한주택공사, 1993;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박재간, 1992; 오찬옥, 1992; 박태환,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연령별로 71세이상이고, 건강이 나빠지며 소득이 50만원미만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시골을 선호하는 경향이 기대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시근교는 70세이하이며 건강이 좋고 소득이 101~200만원 정도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에서 기대비율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는데, 이를 〈표 1〉의 선호하는 관련시설에의 접근시간과 연관시켜 볼 때, 도시근교의 의미가 차를 타고 20분 이내의 거리이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단지형 주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도시를 선호하는 비율은 대학교 졸업 집단에서 기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에 따라 선호 경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여성노인의 주거유형과 주거공간형태 선호

(1) 건강상태별 주거유형 선호

부부가 건강할 때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57.0%)을 보여,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을 그대로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혼자 남게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나, 노후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 주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3세대동거주택(36.7%)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에는 다섯가지 주거유형 중 3세대동거주택에 대한 선호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부부가 건강할 경우에는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선호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표 5> 여성노인의 노인주거단지 위치 선호

n(%)

변수	노인주거위치	도시	시골	도시근교	계	χ ² 값
		f(%)	f(%)	f(%)		
연령	60~65세	24(16.8)	24(16.8)	95(66.4)	143(30.8)	21.05**
	66~70세	17(10.4)	39(23.8)	108(65.9)	164(35.3)	
	71~75세	19(19.0)	36(36.0)	45(45.0)	100(21.5)	
	76세이상	10(17.2)	19(32.8)	29(50.0)	56(12.5)	
	전체	70(15.1)	118(25.4)	277(59.6)	465(100.0)	
건강	좋다	50(15.0)	73(21.9)	210(63.1)	333(71.6)	7.69*
	나쁘다	20(15.2)	45(34.1)	67(50.8)	132(28.4)	
	전체	70(15.1)	118(25.4)	277(59.6)	465(100.0)	
소득	50만원 미만	12(12.6)	43(45.3)	40(42.1)	95(21.7)	24.00**
	51~100만원	32(17.1)	37(19.8)	118(63.1)	187(42.7)	
	101~150만원	6(10.7)	12(21.4)	38(67.9)	56(12.8)	
	151~200만원	6(13.3)	9(20.0)	30(66.7)	45(10.3)	
	201만원 이상	7(12.7)	16(29.1)	32(58.2)	55(12.6)	
	전체	63(14.4)	117(26.7)	258(58.9)	438(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32(15.5)	63(30.6)	111(53.9)	206(44.3)	18.77**
	중학교 졸업	13(11.5)	31(27.4)	69(61.1)	113(24.3)	
	고등학교 졸업	12(11.5)	19(18.3)	73(70.2)	104(22.4)	
	대학교 졸업	13(31.0)	5(11.9)	24(57.1)	42(9.0)	
	전체	70(15.1)	118(25.4)	277(59.6)	465(100.0)	

*p<.05 **p<.01 ***p<.001

<표 6>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별 선호하는 주거유형

건강상태	주거유형		일반주택 아파트		3세대동거주택		자립주택		중간보호주택		양로시설 요양소		계	
	N	%	N	%	N	%	N	%	N	%	N	%	N	%
부부가 건강할 때	265	57.0	77	16.6	107	23.0	13	2.8	3	0.6	465	(100.0)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	34	7.3	171	36.7	50	10.8	146	31.4	64	13.8	465	(100.0)		
혼자되어 건강할 때	98	21.1	102	21.9	138	29.6	106	22.8	21	4.5	465	(100.0)		
혼자되어 건강하지 못할 때	20	4.3	106	22.8	20	4.3	86	18.5	233	50.1	465	(100.0)		

- 자립주택 : 직접 주택을 갖고 노인끼리 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 형태
- 중간보호주택 :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유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반의존적인 형태
- 양로시설·요양소 : 의료시설을 갖춘 완전의존주택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주택형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2세대 주택(3세대 주택, 2가구 주택)이 우리 나라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비관적임을 예측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보호주택(31.4%)에 대한 선호가 3세대동거주택(36.7%)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에

대한 고려가 노인주거계획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혼자되어 건강할 때는 오히려 자립주택단지(29.6%)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으로서의 외로움 때문에 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주택 단지도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가 우리 나라 노인 주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공동으로 가사를 해결하고 같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노인주택계획이 아직 시도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계획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혼자되어 건강하지 못할 때는 과반수(50.1%)가 양로시설이나 요양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았다는(0.6%, 4.5%) 것을 상기할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혼자되어 건강하지 못할 때라도 3세대동거주택에서 자녀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지내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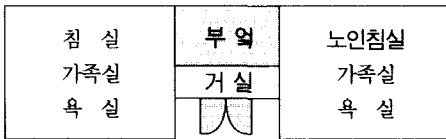
(2) 건강상태별 자녀동거시 주거공간형태 선호

앞에서 3세대동거주택은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 가장 선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공간 대안에 대한 건강상태별 선호하는 주거공간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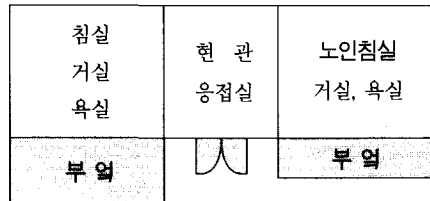
부부가 건강할 때는 부엌과 출입구가 별도(〈그림 4〉)인 인거형·가계분리 주거공간 형태를 선호하

〈표 7〉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별 자녀동거시 선호하는 주거공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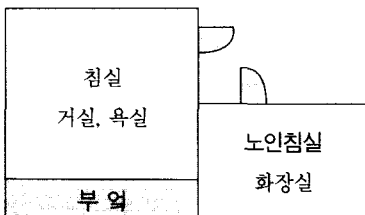
건강상태	공간형태		동거형 가계외존		동거형 가계분리		인거형 가계외존		인거형 가계분리		계	
	N	%	N	%	N	%	N	%	N	%	N	%
부부가 건강할 때	112	24.1	130	28.0	65	14.0	158	33.9	465	(100.0)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	225	48.4	76	16.3	106	22.8	58	12.5	465	(100.0)		
혼자되어 건강할 때	149	32.1	111	23.9	106	22.8	99	21.3	465	(100.0)		
혼자되어 건강하지 못할 때	235	50.6	47	10.1	125	26.9	58	12.5	4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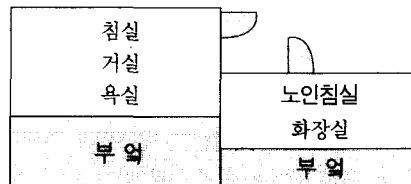
부엌공용/ 출입구공용
〈동거형·가계외존〉 〈그림①〉



부엌별도/ 출입구 공용
〈동거형·가계분리〉 〈그림②〉



부엌공용/ 출입구 별도
〈인거형·가계외존〉 〈그림③〉



부엌별도/ 출입구 별도
〈인거형·가계분리〉 〈그림④〉

〈그림 1〉 자녀동거시 4가지 주거공간 형태

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33.9%), 반면에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거형·가계의존 공간형태(<그림③>)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48.4%), 혼자되어 건강할 때(32.1%), 혼자되어 건강하지 못할 때(50.6%)는 부엌과 출입구 모두 공용인 동거하면서 가계의존형 주거공간 형태(<그림①>)를 선호한 반면에 부엌과 출입구가 모두 별도인 <그림④>를 선호하는 경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한 쪽이 없는 경우는 동거형 가계의존을 선호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녀에게 의존하는 가족부양 우선주의가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동거형·가계분리(<그림②>)형태와 인거형·가계의존(<그림③>)형태는 앞으로도 계획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일본의 2가구주택(2세대주택)이 <그림②>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2가구주택 개발 역시 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또한 대개의 전형적인 단독주택이 <그림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족부양 우선주의' 하에서 건강할 때는 가계를 분리하여 따로 살더라도, 일단 함께 살게 되면 가계의존형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게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여성노인의 주거환경 선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선호는 정원·텃밭이 가장 가까이 있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의 집과의 거리는 다른 시설에 비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인주거시설은 정원이나 텃밭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서 일상생활지원보다는 정신적인 관계망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주거시설 입주의사는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와 노인단독 거주할 경우, 연령이 60~70세, 건강이 좋은 경우, 소득이 101~150만원인 집단의 경

우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전용주거 계획시, 노인의 연령, 건강 상태, 소득 그리고 거주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주거규모는 노인단독 거주시,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는 15평이하를 선호하였다.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 26~30평을 선호하였으므로 노인주거계획 규모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노인주거의 위치로는 과반수 이상이 도시근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도시를 선호하였으나 고령의 저소득, 저학력 노인은 시골을 선호하였다. 도시근교의 의미가 차를 타고 20분 이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10분 내외의 거리로 보아 단지형 주거임을 알 수 있다.

5. 건강상태별 주거유형은 부부가 건강할 때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3세대동거주택을 선호하였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건강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보살피 줄 수 있는 사람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간보호주택에 대한 선호가 3세대동거주택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간보호주택의 정착 가능성도 노인주거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건강상태별 자녀동거시 주거공간 형태 선호경향은 부부가 건강할 때는 인거형·가계분리형을, 건강하지 못하거나 혼자된 경우에는 부엌과 출입구 모두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동거형·가계의존형을 선호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3세대동거주택 계획시의 방향이 부부가 건강할 때는 2가구 주택형도 가능하나, 대체로 가계의존적인 동거형이 선호되고 있음을 증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고경필·윤재웅(1995).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1), pp.88-101.
- 2) 김태일(1995).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 pp.19-27.

- 3) 대한주택공사(1995). 특수수요계층의 주거선호에 대응하는 주택건설 및 공급 방안연구(Ⅱ).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4) 박태환(1990).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계획주거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pp. 105-120.
- 6) 심영외 3인(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pp.1-20.
- 7) 오찬욱(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오혜경(1994). 거주자 요구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단위공간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3, pp.85-90.
- 10)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지은영(1997). 연령계층별 미래노인주거에 대한 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5(2), pp.297-308.
- 1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고령화 사회의 노인 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 경춘사.
- 13) 한국주택협회(1993). 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 14) 홍형옥(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홍형옥 · 지은영(1998). 도시여성노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경희대학교 생활 과학논집, pp.1-16.
- 16) 牛山美緒(1996). 家族像의 變化와 今後의 住宅需要에 關한 研究. 住宅都市整備 工團. 住宅都市綜合研究所. 調查研究 期報. No. 110, pp.27-46.
- 17) Chappell, Neena L.(1985). Social support and receipt of home care services, *Gerontologist*, 25(1), pp.47-54.
- 18) Lawton & Byerts(1973). Community Planning for the Elderl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19) Newcomer(1973). Housing series and Neighborhood Activities, paper presented at the 20th annual meeting at the Gerontological Society, Mairni.